

충북 제천에 위치한 ‘처음책방’에는 약 10여만 권의 초판본이 모여 있다. 수많은 초판본과 창간호를 아카이빙하고 싶다는 꿈을 가진 그를 만나 처음이 가지는 의미를 들어봤다.



제55대 총학생회 ‘스케치’의 주요 공약인 교양과목 절대평가 논의 과정을 짚어봤다.

대학주보

투표율 미달 개표·당선 무효, 논란의 학생회 총선거

박상희 기자 smtg7475@khu.ac.kr
서나은 기자 merlo@khu.ac.kr

양 캠퍼스 학생회 총선거가 마무리됐다. 하지만 양 캠퍼스 단과대학 학생회 선거에서 선거 시행세칙 위반, 후보자 징계와 당선 무효되는 일까지 발생했다.

국제캠 응용과학대학(응과대) 학생회 선거에서 투표율이 과반을 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개표가 진행됐다. 응과대 학생회 투표율은 50.0%(총 유권자 430명 중 215명 투표)를 기록했고 [이-음] 선거운동본부(선본)가 95.81%의 찬성 득표율로 당선됐다. 우리학교 총학 「선거 시행세칙」 48조 4항에 따르면 투표율이 과반수가 넘지 않은 경우엔 투표를 연장하고, 연장된 투표 마지막 날에도 투표율 미달이면 개표를 진행하지 않는다.

이에 우리학교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타)을 중심으로 ‘응과대 투표 처음부터 다시 해라’ 등 논란이 일었다. 우리신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선관위) 권예성(건축공학 2018) 위원장에 개표 진행 이유를 듣기 위한 취재를 요청했으나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응과대 소속 A 씨는 “투표자가 과반이 넘지 않았는데도 개표한 건 투표의 공정성과 신뢰가 훼손됐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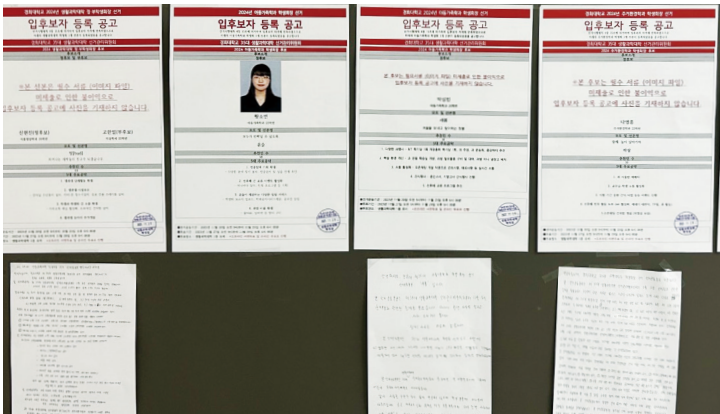
서울캠에선 생활과학대학(생과대) 선본의 이미지 파일 미제출로 인한 과잉 징계 논란, 호텔관광대학

(호관대) 정후보의 선거 시행세칙 미준수와 선거 이후 이의제기로 인해 당선이 무효됐다.

생과대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입후보자는 후보 등록을 위해 후보자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공식 SNS 계정과 벽보에 게재했지만, 생과대 공식 네이버 카페에 게재된 선거 시행세칙엔 해당 사항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 결과, 생과대 단과대학 및 학과 학생회 선거에 출마한 총 5개의 선본 중 1개의 선본(아동가족학과 윤슬 선본)만 이미지 파일을 제출했다.

이후 선관위는 이미지 파일 미제출 선본에 후보자 등록 불허 조치를 내렸지만, 네이버 카페 선거 시행세칙에 해당 내용이 없었다는 이의제기를 접수해 해당 선본의 선거운동 전면 금지와 A4 한 장 분량의 자필 사과문 작성을 결정했다. 사과문은 생과대 1층 로비 및 공식 SNS에 게시됐으며 SNS에는 무기한 게시됐다. 다만, 징계가 과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생과대 소속 A 씨는 “선거운동 전면 금지는 조금 과하다”고 말했다. 또한 에타에는 “이미지 파일 하나 제출 안 했는데 선거 유세 전면 금지에 사과문 무기한 게시는 낙선하라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올라오기도 했다.

생과대 이도윤(식품영양학 2022) 선관위장은 “이미지 파일을 제출하지 않은 선본에게 어떤 불이익을 줄지 논의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며 “과한 징계였다는 점



이미지 파일을 제출하지 않은 네 개 선본의 자필 사과문이 생활과학대학 1층 로비에 게재됐다. (사단-이지수 기자)

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재백(관광학 2020) 중선관위장은 “생과대 선관위는 시행세칙보다 공고 기준으로 징계를 내린 것 같다”며 “선거 공고와 시행세칙을 동일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지 파일 미제출은 소통 과정에서 누락이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호텔관광대학(호관대)에선 후보자의 시행세칙 미준수 및 징계, 당선 무효가 발생했다. 호관대 [SURF] 선본 김민규(외식경영학 2022) 정후보는 선거기간 동안 선관위 SNS 무단 사용, 후보자 및 선본원 개인정보 유출 건으로 두 차례 경고 징계를 받았다.

김 정후보는 제48대 호관대 학생회 대외협력국장이라는 전 지위를 이용해 선관위 계정에 접속했다. 또한 선거기간 내 후보자 및 선본원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가 Hospitality 경영학과, 외식경영학과 두 개의 과방 컴퓨터 파일에서

발견됐다. 김 정후보는 이후 사과문을 게시했다.

이러한 논란에도 김 정후보는 호관대 학생회장예에 당선됐다. 하지만 선거 이후 닷새 동안 진행된 이의제기 기간에 ▲김 정후보의 단과대 학생회 구글 드라이브 상시 로그인 ▲허가받지 않은 선거 현장 독려 ▲선거운동 기간 이후 유세 ▲선본 SNS 계정 삭제 미실시 내용의 이의가 접수됐다.

관련 논의는 지난 5일, 호텔관광대학운영위원회(관운위) 회의에서 진행됐다. 논의 결과 이의제기 사항이 모두 사실로 확인됐고, 총인원 17명 중 14명이 참석해 찬성 7, 반대 0, 기권 7로 가결됐다. 이후 선거 무효안건이 전체 학생 대표자 회의에 상정됐다.

호관대 선거 시행세칙 제40조 2항은 이의제기가 인정될 때 재적인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선거 무효안건을 전체 학생 대표자 회의에 상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논란은 회의 참석 인원 중 찬성이 2/3를 넘지 않았음에도 가결됐다는 점에서 불거졌다.

김 정후보는 “이점에 의문을 갖고 호관대 선관위장에 문의했는데 기권 표와 관련한 회칙이 부재해 의결이 어려운 경우, 상위기구인 중앙운영위원회(중운위) 방식에 따라 기권 표를 제외한 찬/반의 비율로 의결을 진행해 왔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전했다. 논란의 지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관운위는 회의 안건이 ‘이의제기가 정당하다’인지 ‘정당하지 않다’인지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았으며 투표를 기명으로 진행됐는지, 무기명으로 진행됐는지도 불분명하다.

이와 관련해 우리신문은 호관대 민솔(문화엔터테인먼트학 2021) 선관위장에게 지속적으로 취재를 요청했으나,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선관위는 논란과 관련해 지난 6일 호관대 공식 SNS 계정에 “의결에 앞서 상위기구인 중운위의 의결 방식을 채택했으며, 해당 투표 의결 시 기권 표는 ‘이견 없음’으로 투표에 영향을 주지 않음에 성원 전체의 동의를 얻었다”며 “결과 해석에 여러 혼선이 발생할수 있음을 간과함에 사과드립니다”는 입장문을 게재했다.

이후 지난 7일 전체 학생대표자회의에서 이의제기에 따른 당선 무효 심의가 진행됐고, 찬성 16표, 반대 7표, 기권 6표로 가결돼 김 정후보의 당선은 무산됐다.

총장 예비 후보자 10인 5인 압축 예정

이지수 기자 ssu1404@khu.ac.kr

지난 7일 기준, 총장 예비 후보자 10인이 선정돼 총장후보추천위원회(총추위) 단계에서 숙의·자문과정을 거치고 있다. 총추위가 예정대

로 11일 월요일까지 총장 후보자 5인을 선정하면 후보자 5인은 바로 이사회로 전달돼 최종 선임 단계를 거치게 된다.

행정지원단(단장, 권오병 학무부 총장)에 따르면, 11월 1일(수)부터

15일(수)까지 진행된 ‘초빙·공모’를 통해 총 39명의 총장 후보자가 추천됐다. 이중 총장 후보직을 수락한 인원은 15명으로 알려졌다. 각 단체별 5인으로 구성된 총장후보추천위원회(총추위) 위원들은 학력 및 경력 등의 기본 이력과 함께 추천 사유 등을 근거로 총장 예비 후보자를 추천하는 논의를 마무리한 것으로 보인다. 총장 후보자는 내부 인사뿐 아니라 외부 인사도 포함됐다.

15인 중 총추위에 선발된 총장 예

비 후보자는 10인이다. 총추위 숙의 위원이 숙의와 자문을 통해 총장 후보자를 5명으로 압축할 예정이다. 총추위는 이사 4인, 이사회 추천 전문가 1인, 구성원 추천 전문가 4인으로 구성됐다.

총장 예비 후보자의 총장상 부합도, 업무 수행 적합도, 이사회·구성원 소통 역량, 전환·혁신의 리더십 역량, 조직관리 역량 등을 검토하게 된다.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5명의 후보는 바로 이사회로 전달돼 총

장 최종후보자 선정을 거쳐 최종 선임 될 예정이다.

행정지원단은 지난 7일, 전체 구성원에게 송부한 공문을 통해 “후보별 상세 이력서와 후보별 역량·경험 등 업적 소개서, 후보별 자기 점검리스트, 총장후보추천위원회 결과보고서, 총장후보추천위원회 제공 자료 일체를 총추위에 제공했다”며 “이후에도 단계별 진행 상황을 구성원 여러분과 공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